

**무**주군의회 8대 전반기 의장을 맡고 있는 유승열 의장은 “지난 한 해 무주군의회에 아낌없이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며 “2019년 기해년을 맞아 군민들의 생활에 활력이 넘치는 황금돼지 해가 되도록 무주군 의회는 새로운 마음으로 의정 활동에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시대적 도전은 우리에게 또 다른 혁신을 요구하고 있으며, 아픔이 내린다고 해도 아침은 덮을 수 없고, 함박눈이 펄펄 온다 해도 봄은 덮을 수 없고 절망이 어둠다 해도 희망은 덮을 수 없다”며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다. 그는 “더욱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며, 의회에서도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본보는 무주군의회 유승열 의장을 찾아 새해 포부를 들어본다. /편집자 주

# 창의성 · 노련함 바탕 톡톡 튀는 아이디어 실현 가능 방안 제시



무주군의회 유승열 의장

▲군민들께 새해 인사 말씀드립니다.  
희망찬 2019년 기해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무주군의회에 군민들의 아낌없이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보다 확실할 수 없고, 어떠한 것도 예측하기도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픔이 내린다고 해도 아침은 덮을 수 없고, 함박눈이 펄펄 온다 해도 봄은 덮을 수 없고 절망이 어둠다 해도 희망은 덮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회에서도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말만 들어도 풍족함이 느껴지는 황금돼지띠의 해입니다. 올 한 해 풍성하게 무엇이든지 성취하시는 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7대 의장에 이어 8대 전반기 의장을 맡은 소감을 말씀하시죠?

제7대 후반기 의장에 이어 제8대 전반기 의장을 맡게 된 것에 대해 7대 후반기 때보다 더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막중한 중책을 맡겨 주신 것이 기쁘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앞으로 임기동안 제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군민,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군민이 행복한 무주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면서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 무주군 발전이라는 동일 목표를 함께 달성할 것입니다. 의정 활동에 있어서도 오직 ‘군민’만을 위해 일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제8대 무주군의회 의회 활동은?

제8대 무주군의회가 개원한 이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무주군 발전을 위해 다섯 번의 회기 동안 군정주요업무보고, 각종 조례안 및 예산안 처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며, ‘태권도 전문 방송 채널’ 신설 건의,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건의 등 무주군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에 대해 발 빠르게 대처했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 의원들과 위원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공감하면서 정책적인 제언도 하며 의정활동의 내실화를 기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경험만큼이나 의정활동을 위한 탄탄한 이론도 필요하기 때문에 세 번의 의정연수를 통해 교육을 받고, 수시로 동료의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나누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에서 중시를 두는 것은?

무주군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만큼이나 집행부와는 관계에서 협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각기 역할과 기능이 다르지만, 두 기관이 모두 존재하는 이유는 오로지 ‘군민’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신경전은 접어두고 군민의 행복지수 향상과 편익 증진 그리고 무주군 발전을 위



해서 양 기관이 서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원해야 무주군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군민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 군민들이 행복할 것인지 군민들과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작은 범위에서 말씀드리자면 3가지는 반드시 해결하고 싶습니다. 인구의 고령화, 출생인구의 감소, 청년실업·노년빈곤층 증가 등의 문제는 소규모 도시인 우리 군에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문제와 노년빈곤층 해소를 위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일자리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는 행정적,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인구정책에서는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며, 무주 전 지역에서 균형 있게 발전하는데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장 확대에 필요한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상식적인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어떠한 결정을 하든지 그 결정에 다수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공감대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소통으로 현장 중심 의정활동?  
변화의 물결을 되돌릴 수 없듯이 우리 모두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통과 혁신을 도약의 기치로 내세우며 사람 중심의 소통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난해보다 올해는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황금돼지 해를 맞아 의회는 군민의 성원과 지지를 원동력으로 군정의 각 분야에서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적

“무주 발전 동일 목표 달성 집행부와 협조체계 유지 인구 고령화·출생인구 감소·노년빈곤층 증가 등 3대 문제점 해결 노력할 것 소통의회 조성에 최선”

극 펼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구 고령화, 출생인구 감소, 청년실업·노년빈곤층 증가 등이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 의회는 다각적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의회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무주군 발전을 위해 군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의 소통의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합니다.

▲지방자치 평가 의정대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소감 한마디 말씀해주신다면?

지난해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상은 전국 광역·기초단체 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제도 활성화 및 주민행복정책 입안 우수의원, 주민복지 증대, 삶의 질 향상, 경쟁력 있는 지역발전 시책 장려 등을 평가해 시상하는 상입니다.

그동안 쉽 없이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는 생생한 현장 의정활동을 펼치고, ‘무주군 체불임금 없는 관공사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등 민생과 서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높이 평가 받았습니다. 의원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어깨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사람중심의 소통으로 군민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군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정치철학 내지 마음에 와 닿았던 명구가 있다면?

선우후라(先憂後樂)를 정치 신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선우후라의 어원은 ‘선천하지우이우(先天下之憂而憂, 후천하지락이락(後天下之樂而樂))’을 줄인 말입니다. ‘천하 사람들이 즐긴 후에 즐긴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즐거움을 공감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일상으로 파고들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감정을 공유하는 것은 다른 매개체를 통해서 간접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현장을 중심으로 군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즐긴 후에 즐긴다는 것은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즐거움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삼을 줄 아는 자세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신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군민들에게 한 말씀 한다면?

지도자는 희망을 파는 상인이고,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말이 있습니다. 이를 실

현하기 위해 무주군의회는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의회는 민생을 살피고 희망을 만들어가는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낮은 자세로 임하고·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군민들의 생활이 좀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는 의회로 거듭나는 것은 물론 좌절을 딛고 희망을 차곡차곡 쌓아 군민 모두가 풍성한 황금돼지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의정활동 각오에 대한 견해는?

앞으로 8대 의회 의원 모두는 앞으로 4년간 군민여러분께서 부여해 주신 소명과 책임을 다해 지역 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성과 노련함을 바탕으로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실현가능한 방안을 제시해 작지만 끈질기게 살아남는 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쓴 소리, 단 소리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군민의 뜻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올바르게 군민의 뜻을 대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제8대 무주군의회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주=전문선 기자